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9호 2024년 12월 1일(다해) 대림 제1주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호사비오리(*Mergus squamatus*)

제1독서 예레미야서 33,14-16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3,12-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홍보·전산
오픈카톡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

가톨릭상지대학교 교목처장
이요람 요람 신부



시인 기형도는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서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한 빛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91.)

교회의 달력은 어김없이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시기’를 맞이하자 합니다. 시인의 ‘유년의 윗목 시절’처럼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쁨과 설렘, 외로운 조바심이 긴장을 이루는 이 ‘기다림’의 시간엔 언제나 더 좋아하는 사람의 전전긍긍함이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고운 마음일 것이고 그래서 다치기 쉬운 마음일 테지요. 그렇기에 대림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조심스럽고, 또 부드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애담보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은

언제나 더욱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것인가 봅니다.

가장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지는 않을까요?

기다림. 하염없는 이 사건은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론 부단한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다 지칠까, “찬밥처럼 방에 담겨” 몸서리나진 않을까. 그래서 매년 우리에게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던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모습 그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어김없이 우릴 찾아오십니다.

그 덕에 우리의 ‘윗목’은 아랫목 마냥 그리도 훈훈할 수 있는가 봅니다.

대림시기. 기다림을 가리키는 이때에도 조바심과 외로움보다 마치 올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이의 행복에 젖어 들곤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을 넘어 “깨어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살아가겠다 굳은 마음을 먹어 봅니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부터 성탄이 안겨주는 기쁨과 흡족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시기의 시작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에 기다림의 행복이 고요히 젖어 들길 기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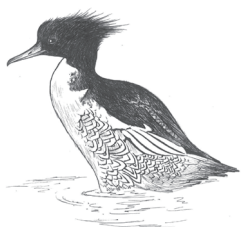
자박자박.

성탄의 소식을 안고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행복’에 겨운 이 시간을 복되게 보내도록 합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33,14)

지켜주세요 <호사비오리>

표지 사진 설명



H.M

겨울 철새인 호사비오리는 뒷머리의 길게 뻗은 땃가리와 옆구리의 뚜렷한 비늘무늬가 특징입니다. 몸길이는 약 52~58cm이며 눈은 검은색이고 붉은색 부리 끝에 노란 점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 번식하며, 주로 중국 남부의 하천이나 호수에서 월동합니다. 각종 어류를 즐겨 먹으며 국내에는 소규모의 무리가 남한강, 강촌, 대청호 등의 산악지역 맑은 하천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호사비오리는 특히 강이나 하천, 호수, 저수지 등의 정비 사업으로 인한 수심 및 유속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발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치수 사업이 호사비오리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듭니다.

수도원 정원의 일부를 언제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어 거기에 들꽃과 목초가 자라게 하여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혜안을 기억합니다.

의성본당- 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한실 교우촌

-숲속의 작은 광장-

정상동 본당 송규흠 아오스딩

한 번 간 적이 있는 곳인데, 다른 이의 차를 타고 간 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네비게이션에 한실 교우촌을 쳐보고, 한실을 쳐봐도 반응이 없다. 셀폰의 지도를 열어 백화산 중턱과 가까운 지명을 찾았다. '상내1리'다. 진남 휴게소를 지나자마자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다. 가는 쪽으로 5Km쯤 가다가 좁은 산길로 들어서 한참을 올라가니 상내 1리 표지판이 보인다. 길가에 몇 채 집들이 보일 뿐 물어볼 사람도 없다. 무작정 길을 따라 산 쪽으로 간다.

표지판이 보인다. '한실 교우촌 5길로'. 산으로 오르는 좁은 길.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산판길을 보수한 듯, 바퀴 두 개가 길에 짝 찬다. 긴 풀들과 제멋대로 자라는 나뭇가지들을 헤치고 산길을 오른다. 길 옆은 낭떠러지, 교통도 불가능하다.

산들이 눈 아래로 멀다. 좁은 길은, 돌아돌아 산을 오르다 한실 교우촌이라는 안내판이 보이는 곳에서 끝이 난다.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창고 옆으로 서너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한실교우촌 1Km' 안내판 뒤, '마원성지 8Km'라는 표지판도 보인다. 백화산 정상을 넘어 마원성지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뾰족한 나무들, 교우촌으로 내려가는 오솔길에 낙엽이 가득하다.



죽어가는 것이 아름다울 때도 있다. 봄날의 햇살과 온몸으로 안았던 뜨거운 태양 같은 열정과 모든 걸 내어주는 풍요로움을 모두 품고 있기에 떨어져야 익는 낙엽은 오히려 더 아름답다. 저 아래 우거진 숲속에 남몰래 숨어지내면서도 그곳이 주님 나라라 여기며 천주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동여매고 살다가,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생을 내놓은 그들의 죽음도 낙엽처럼 아름답다.

연신 떨어져 내리는 낙엽들은 가을 산바람에 흩어져 날린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이 오면 낙엽은 푸른 나뭇잎으로 움을 틔우고, 숲속 마을에 살던 그들은 후인들의 가슴에 새로운 신앙의 불을 지핀다.

발밑에 쌓인 낙엽들이 서걱거리며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지에 들어선다. 1000m가 넘는 백화산 중턱 숲속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다.

산 정상에 바로 눈앞에 있고 나무들 사이로 발밑의 풍경들이 아스라하다.

'순교자 서유형', '순교자 박 루시아' 무덤을 중심으로 좌측 조금 떨어진 곳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의자인 듯 보이는 나무 토막들, 돌을 쌓아 만든 오솔길, 텅구는 낙엽들.....

나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선조들의 흔적이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 오히려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이 이 산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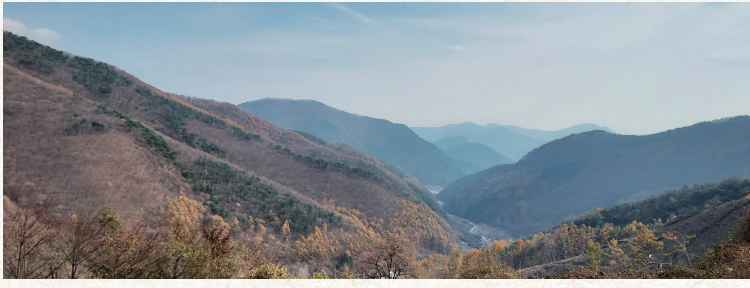
무덤 오른쪽 길을 따라 내려가면 숲 사이를 흐르는 개울가에 돌무더기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다. 교우들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기에는 좁은 공간이지만,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 숨어다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이곳에 터를 잡고 천주를 그리며 기도하면서 오히려 행복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 살던 14명의 교우들은 결국 이곳에서 잡혀가 하느님 나라로 갔다.

무덤 아래쪽 가파른 비탈에 나무판자로 지은 작은 화장실이 보인다, 지붕이 유리인 듯하여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보인다. 화장실 안의 나무덮개, 그리고 포대에 가득한 쌀겨, 그 안에 작은 바가지. 숲속의 움막 교우촌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예쁜 화장실이다.

나무토막 의자에 앉아 십자가를 본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들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였을까?

늦가을 햇살이 뉘엿뉘엿 나무 십자가 위에 내린다.



<영주성분도 어린이집>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리사이클링 놀이’로 연계하였습니다.
- 2) ‘리사이클링 놀이’를 원에서 하고 다음 달 가정에서 연계하여 놀이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리사이클링 놀이’는 ‘종이로 놀아요. 플라스틱으로 놀아요. 비닐로 놀아요, 캔으로 놀아요.’입니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성연합회 피정

11월 8일(금)~ 9일(토)에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몸으로 떠나는 치유여행’이라는 주제로(강사: 문미라 보나 수녀님) <여성연합회 피정>이 (12개 본당 49명)이 있었습니다.



전례봉사자 교육(성가대)

11월 16일(토)에 갈전마티아 본당에서 <전례봉사자 교육(성가대)>이 있었습니다. (강사: 김규화 잔마리 수녀님, 강의: 기도의 마음을 담은 노래와 함께)



교리교사의 날

11월 17일(주일)에 <교리교사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 근속 상 시상(11명: 신승용 세례자 요한, 유은희 아네스, 이상희 엘리사벳, 김보나 보나, 주지연 수산나, 김선화 비비안나, 박은정 피아, 강주리 뽀리나, 김명화 소화데레사, 김태곤 테오필로, 송경애 울리아)과 배론 성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들러 성경에 등장하는 유물들을 관람한 후 도미니코 봉쇄수녀원을 방문하여 수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교리교사들(50명)은 축하와 격려를 주고 받으며 친교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등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꺽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농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 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지 위해 사용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 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 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영덕상회

동광어시장 내 1호, 2호. 각종건어물
신천옥 바오로, 최정혜 데레사
영덕군 강구면 대게로 108-1
전국 택배
T.010-3453-0205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T.054-855-7582~3

바오로딸 서원

안동시 서문동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인터넷 서점- <http://www.pauline.or.kr>
T. 054-859-6040







교구장 동정



12월 2일 교구장 성성일 행사
12월 3일 상주시장애인종합
사회복지관 감사의날
12월 6일 사회복지법인 후원자
감사의날
12월 7일 상주가르멜여자수도원
종신서원 미사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2월 3일 이춘우 박효재 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축하합니다

교구장 성성 기념일

12월 4일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교 구

2024. 12. 04

주교님!

성성 기념일을 축하 드립니다.

성성 기념일을 맞아 주교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교구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2. 6(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교3 피정

일 시: 12. 7(토) 14:00

장 소: 가톨릭 상지대학교 두봉관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12. 8(주일) 10:00

장 소: 문경본당 정리공소

2024년 청년성서모임 미사

일 시: 12. 8(주일) 14:00

장 소: 교구청

※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성서모임에
관심있는 모든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2024년 예비신학생 모임 종강미사

일 시: 12. 15(주일) 14:00~ 17:00

(종강미사 15:00, 주교님 주례)

장 소: 교구청 강당

대 상: 예비신학생, 예비신학생 부모, 대신학생

수 도 회 · 피 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모임

일 시: 12. 7(토) 14:00 (그 외는 전화)

장 소: 서울 보문동, 부산 부곡동 수녀원

문 의: 루카 수녀 010-9353-1773

대 상: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각 6-8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 김민철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 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 01:00

강 사: 한연홍 신부, 김웅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기 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은인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날 기념식"

일 시: 12. 3(화) 14:00~ 15:00

장 소: 복지관 체육관

문 의: 054-534-6933~5/ 010-8663-7850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

교 육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 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 용: 가톨릭 신학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 접수: 11. 11(월)~ 2025. 2. 14(금)

문 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11. 8(금)~ 11. 22(금)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 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2024년 가톨릭상지대학교 겨울학기 평생직업교육과정 모집

신청기간: 11. 18(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lead.csj.ac.kr 접속 후 신청

총 23가지 수강료 할인 유형(최대 100%

환급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신청문의: HIVE센터(851-3007-8/lead.csj.ac.kr)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2. 21(토), 28(토)/ 12. 22(일), 29(일)
(각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ChatGPT 등) 활용하기
(SNS마케팅, 동영상, 이미지, PPT제작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2024.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 안내

일 시: 2025. 1 3(금)~ 5(주일) (2박3일)

장 소: 양업고등학교(043-260-5076)

대 상: 현재 중학교 1, 2학년

접 수: 홈페이지 12. 17(화) 10:00~ (선착순)

회비 입금: 15만원, 접수확정 문자 후 이체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착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 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